

무등산 군부대 이번엔 기름유출 '물의'

경유 172ℓ 이틀간 줄줄... 탐방객 제보로 뒤늦게 파악 잇단 환경 훼손에 인색한 정상 개방 등 골칫덩이 지적 환경단체 등 공군부대 이전 요구 확산 움직임 거세

무등산 정상에 주둔중인 공군 부대가 국립공원 무등산의 골칫거리라는 지적이 거세다. 지역 영공 방위를 책임지는 파수꾼 이미지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무등산 등반을 막는 횡방꾼으로 가려지는가 하면, 정상을 훼손하고 기름을 유출해 환경 오염 피해를 야기하는 '무등산 애플단지'라는 비판마저 받고 있는 형편이다.

◇탐방객 제보로 확인=공군본부는 22일 무등산 정상에 주둔 중인 공군 8331부대가 지난 15일 오후 4시30분께 유류저장고에서 기름 유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당일 오전 10시40분께 '정상부 인근에 기름띠가 있다'는 탐방객 제보를 받고 6시간여 동안 부대를 살피 유류저장고 배관 파손으로 기름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지난 13일 내린 비로 녹슨 배관이 떨어져 유류저장고에 보관하던 5521ℓ 중 3차에 걸쳐 사용하고 남은 경유 172ℓ가 전량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류저장고와 비상발전기를 잇는 35m(지름 40mm) 가운데 5m 가량의 철제 배관의 경우 지난 2000년 8월 설치된 뒤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유출된 기름이 정상부에서 300m 아래 지점까지 흘렀지만 곳곳에 눈이 쌓여있던 탓에 퍼지지 않고 수거됐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부터 8일 동안 9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오염된 흙 300kg, 물 13t을 수거했다고 덧붙였다.

◇정상 훼손, 시민 불편=무등산 정상에 주둔 중인 공군 부대는 이번 기름 유출 사고 이후 무등산 환경을 훼손하는 '골칫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장, 기름 유출 사고만 하더라도 환경 보호 핵심지역에 주둔하면서도 ▲탐방객 제보가 이뤄지기 까지 이틀 동안 기름유출 사실을 몰랐다는 점 ▲15년 이상 노후화된

유류 배관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등으로 책임론이 비등하다.

앞서, 공군 부대는 방공포 설치를 명분으로 설명이나 양해 등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등산 정상(1187m)을 2m 깎아 훼손하는가 하면, 자연암석 형태의 지랑봉 봉우리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울벽과 계단을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군은 또 광주시 소유 부지(21만6894㎡)에 주둔하면서도 사용료를 한 차례도 내지 않는가 하면, 자기 땅인양 '정상 개방 불가' 입장을 내놓는 등 국민을 위한 군(軍)의 존재 의무를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무등산복원시민모임 등 환경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공군부대 이전 운동을 확산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벌일 태세다.

무등산복원시민모임 관계자는 "기름유출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는 공군부대를 영공수호 명분으로 국립공원 정상에 주둔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차제에 시민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군 부대 이전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방공포대 관계자는 이와관련, "책임을 통감한다.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비관, 비난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난 19일 오전 무등산 국립공원 정상에 주둔 중인 공군부대로부터 300m 아래에 위치한 계곡에서 군 장비가 흘착포와 바가지들 이용해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인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의 한 캠핑장 내 텐트시설에서 화재 순간 불이 나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사망자 가운데 3명은 일가족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이날 인천지방경찰청이 화재 현장 인근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강화도 캠핑장 불 7명 사상

순식간에 텐트 태워 잠자던 어린이 3명 등 참변

22일 이른 오전 인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의 한 캠핑장(일명 글램핑장) 내 텐트시설에서 불이 나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사상자 가운데 6명은 중학교 동창 사이인 두 남성의 일가족으로 확인됐다. 화재 취약시간인 새벽에 불이 났고 텐트가 가연성 소재여서 인명피해가 컸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불은 오전 2시 9분께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한 캠핑장 내 텐트에서 일어났다. 경찰이 확보한 캠핑장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면 텐트 안에서 초롱불 같은 불꽃이 번쩍한 직후 불과 3분 만에 텐트 전체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이 불로 이모(37)씨와 각각 11살, 6살 된 이씨의 두 아들이 숨졌다. 다행히 이씨의 둘째 아들(8)은 인근 텐트에 있던 박모(43)씨와 펜션 관리인 김모(53)씨가 구조해 2도 화상만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박씨도 구조 과정에서 다쳤다.

또 이들과 함께 텐트에 있던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천씨의 아들(7)도 숨졌다. 화재 현장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가 컸던 가장 큰 이유는 텐트 재질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천막이었던 탓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연성 재질의 천막인데도 화재에 대비한 장비가 적절하게 비치되지 않은 점도 인명피해를 키웠다.

불이 난 텐트는 캠핑장 사업자가 설치해 놓고 빌려주는 텐트다. 내부에 컴퓨터, 냉장고, 난방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정작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는 없었다. 일부 사망자가 대피하려는 흔적 없이 정 자세로 누워 있었던 점으로 미뤄 잠든 상태에서 번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사망자 5명 전원의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펜션과 캠핑장은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보상 문제로 난항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헬기 실종자 추가 발견...25일 합동영결식

장용훈 경장 수색작업은 계속

가거도 인근 해상에 추락했던 해경 헬기에서 실종자가 추가 발견됨에 따라 탑승자 4명에 대한 합동영결식이 국민안전처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22일 서해해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서해해경본부 항공단 소속 경찰관 4명에게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최승호 경장·백동훈 경장·박근수 경사·장용훈 경장의 영결식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서해해경본부 본관 앞에서 엄수된다. 고인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23일부터는 목포 호사방병원 장례식장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 조문객을

받는다. 장용훈 경장을 찾는 작업은 계속된다. 헬기에 탑승한 해경 4명 중 정비사 박근수 경사는 지난 13일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으며, 최승호 경장, 백동훈 경장은 20일 새벽 3시30분께 사고 헬기와 함께 인양되면서 현재 실종자는 장 경장 1명이다.

해경은 구역을 넓혀 해경 함정 16척, 민간어선 8척 등 선박 29척과 항공기 2대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경 122구조대 소속 잠수사 10명은 사고 지점 인근인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방파제 주변에서 수중 수색을 하고 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화훼농가 침수 피해는 광주시·도로공사 책임

대법원, 1억원 배상 판결

광주시와 한국도로공사가 화훼 농가와 3년 가까이 진행하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국 패소해 1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광주시와 도로공사가 도로 공사 과정 등에서 장마·집중호우에 대비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화훼농가 침수로 이어지게 됐다는 게 대법원 판단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박모(여·55)씨가 광주시·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

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광주시 등은 박씨가 침수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광주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수해 피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액 1억67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7월, 2010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장미를 재배하는 농장이 침수 피해를 입자, 시와 도로공사를 상대로 무안~광주 고속도로 서광산 IC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설공사 과정에서 장마·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배수 펌프시설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소송을 냈었다. /백희준기자 bhj@

화순 "전원주택지" 매매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임야 328평
- 33필지중 1필지
-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2015년 5월 완공 예정
- 투자가치 좋음
- 매매가 - 1억 6400만원 (일시불 조정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 광주 월산동 110-18번지
- 정남향, 2013년 신축
- 내부 깨끗, 첫 입주, 즉시 입주가능
- 신우 APT 105동 옆
- 매매 - 1억 7400만원(대출 1억 1천만원 포함)
- 5층 중 2층 34평
- 방 3, 화장실 2, 거실
- 감정/시세 - 2억원 정도

월산동 "광전파크" 빌라

주인직매 H. 010-3605-5000